



## 2012 총무로 사진축제 사진 메카 총무로서 열린 첫 사진축제

올해 첫 행사로 열린 '2012 총무로 사진축제'가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무로 극동빌딩을 비롯해 지역 상가 50여 곳과 갤러리브레송, 세기P&C(주), 반도카메라 등 총무로 일대에서 열린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인쇄의 메카인 총무로는 우리나라의 사진문화를 이끌어 온 곳이기도 하다. 총무로는 지난 50여 년 동안 사진전문 갤러리, 사진전문 기획사, 카메라전문점, 전문 현상소, 프린트 랩 등이 위치한 사진 1번지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총무로는 디지털 사진, 온라인 사진문화의 확대로 메카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사진예술의 축제를 통해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대중매체로서의 사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진문화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2 총무로 사진축제가 마련됐다.

### 총무로를 다시 사진의 메카로

사단법인 사진문화포럼이 주최하고, 국민연금공단, 중구청, 서울문화재단이 공동 후원, (주)니콘이미징코리아가 단독 협찬한 2012 총무로사진축제는 메인 사진전인 본전시 '자연 존재의 거울 Nature! The Mirror of Human Being'을 비롯해

프로젝트 총무로, 스트리트 걸개 사진전, 스페이스C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사진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본전시 '자연 존재의 거울'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타의 문화행사와는 달리 동시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느끼자는 취지에서 제1회 총무로 사진축제 주제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선택했다. 자연의 현상까지도 인간이 개입하는 지금, 대자연의 순리와 조화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표정으로 서 있는지, 자연과 인류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관해 화두를 던진다.

'프로젝트 총무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 1인과 총무로 지역 상가 1곳을 연결해 상가 내에 전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예술가들과 총무로 도시지역 내 50여 곳 상가의 협업을 통해 상가 내부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조성 후 작품을 설치해 일상의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스페이스C’ 프로젝트를 통해 충무로 도시 공간 내 임대건물의 비어있는 공실 20여 곳을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스트리트 걸개 사진전’은 충무로 이면도로에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국내외 사진작가의 예술작품을 걸개사진을 이용해 전시하는 것으로 충무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광고, 다큐멘터리, 예술사진 분야 등 현대사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개하는 사진전이다.

충무로사진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 “문화적 소통의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사진의 문화적 잠재성을 일깨우고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사진문화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충무로사진축제가 기획됐다. 사진문화의 거점인 충무로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본전시 ‘자연 존재의 거울’

첫번째 충무로사진페스티벌에서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에 관해 이야기한다. 극동빌딩 1층과 2층에서 열린 본전시 전시작 중 일부를 소개한다.

### 프랭크 헤어포트



소셜리얼리즘이라는 장르를 바탕으로 작업하는 프랭크 헤어포트는 우리사회의 리얼리티를 극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판타지처럼 보이게 하는 아이러니를 그려낸다.

건축과 인테리어 필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는 러시아와 독일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 올리아 크리스테



올리아 크리스테의 ‘White Sand’에서 인간들은 눈부시게 희고 아름다운 하얀 모래사장에서 무한할 것 같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모래사장은 미국의 미사일 테스트 부지다. 히로시마 원폭

을 위한 실험 장소였던 이곳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실과 그녀의 작업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씩씩한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다.

### 로베르트 보이트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토마스 루프에게 수학한 로베르트 보이트가 미국과 영국을 돌며 무



선통신망의 거점으로 이용되는 나무들을 촬영했다. 인간의 이기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띠며 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숨겨진 참모습을 볼 수 있다.



### 이민호

작가의 Linked Landscape는 공간과 풍경을 임의로 끊임없이 변경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라마나 영

화의 세트장의 모습을 빌어 보여준다. 사이버 공간의 이미지들을 ‘클릭’해 다른 차원으로 ‘링크’시켜 펼쳐낸 세계는 마치 인간이 부자연스러운 자연을 탄생시킨 것과 같은 낯설음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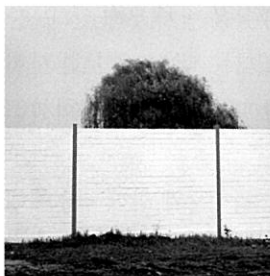
### 이소영



감성이 묻어있는 일상의 사물을 자연과 함께 매치시켜 극단적인 모노크롬 화면을 탄생시키는 이소영의 사진은 일상의 사물들로부터 연계된 작가의

감성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되고 언어화되며 소통되는지에 대해 집중한다. 새롭게 재구성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사물들은 그 본래적 의미를 벗겨내고 우리의 이성적 논리를 벗어나 문자적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로 다가온다.

### 양지영



‘있다가 사라진 것, 혹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은 없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양지영의 작업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내고 방치하는 사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

다보게 한다. 자연, 사물, 인간의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각각의 존재이유를 흔적에서 찾아내는 그의 사진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와 존재하는 의미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